



[금융]
4대 금융그룹
고배당정책 논란
04



Economy

코스피	2179.49 (+3.38)	코스닥	753.13 (+4.77)
금리 (2년 기준)	1.80 (0.00)	환율 (원/달러)	1132.10 (-5.20) (18일)

‘조세저항’ 반발 속 “공정과세” 의견도… 나눠진 국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소유자
보유세 부담에 불합리 호소
1주택자 예외 등 조정 요청

정부·무주택자
투기근절 위해 인상 불가피
조세정의·공정과세에 부합

공시가격 현실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정부와 무주택자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련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은 물론 집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청원하고 법안 만들고… 반발**
18일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은 5.32%, 서울은 14.17%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3.98%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12년 만에 최대 폭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전년(14만8077가구) 대비 5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졌다.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예정 공시가격(동·호수별상이)은 1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9억1200만원) 대비 10.5%(9600만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너무 급격합니다.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달: 2019-04-16] [발행인원: 6]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 매년 5.3%가 올랐구요.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7년간 ...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요런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올리고 있어 화가 납니다. 꼭! 다시 재검정 해주세요.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달: 2019-04-16] [발행인원: 4]

저는 광동구 일산동 신시원아파트 전용면적 59.64 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국토부세외에 확인해 보니 전용면적 72.02 제곱미터도 그동안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세에 할 송수금 하던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건... 재산법인가요? 제 재산도 잘못도 없는데 국토부에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1가구 20년이상 소유자는 종부세 폐지 청원 및 공시 가격 재 조정 요청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달: 2019-04-16] [발행인원: 2]

1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폐지 및 집값은 내려가고 배제도 연되는데 공시 가격도 기증도 명확하지 않게 강행하므로 세 물리는 세금 소득 정권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세에 다시 살펴보고 배도 합과 추수금 하라며 고령 한세 시는 사정들은 세금 1월도 연세고 내출판야 할 안 사정들은 안 보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정부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공시가격 인상안 조정 요청 관련 청원을 캡처. /채신화 기자

원) 올랐다. 부동산정보센터에서 단순 계산해본 결과, 이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66만6592원에서 올해 326만3328원 22.4%(59만6736원) 인상된다.

그러자 주택 보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조정 요청하는 청원글이 20건 가까이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너무 급격하

다.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시가 급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시가격 인상을 조정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세 저항을 위해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글 또는 후기글 등이 다수 게재됐다.

<3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metro 100 PLUS

메트로신문 ‘2019 100세 플러스 포럼’
‘풍족한 노후’ 재테크 토크쇼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목) ‘2019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재테크 토크쇼’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은퇴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다양한 규제 속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리 매리츠자산운용 대표·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폭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산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재테크 토크쇼’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 :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 제 :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일 시 : 3월 28일(목) 08:30~13:00 (VIP 티타임 08:30~08:55)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 최 : 메트로신문

metro



광화문 광장 떠나는 세월호 천막
지난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천막이 4년 8개월 만인 18일 오전 철거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리베이트 제공’ 동아ST에 급여정지, 법원이 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내달 5일까지 잠정 인용
폐지된 법령 적용 논란도



동아에스티(ST)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하루만에 효력정지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동아ST의 약품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동아ST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곧바로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이처럼 빠르게 대응한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기업에 미칠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처분이 적절하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ST에 최소 380억원 손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오후 동아ST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지 반나절 만이다. 복지부는 동아ST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난 15일 동아ST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했다. 13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아ST의 처벌대상 약제 품목들에 대한 급여정지는 4월 5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한숨 돌린 동아ST는 행정소송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시작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회사 측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입던 막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의 가혹함을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심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린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개월의 급여 정지는 사실상 87개 품목의 시장 퇴출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대체약이 있는 한 굳이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급여 정지된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의 처방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한번 제외된 의약품은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87개 품목은, 동아ST 전체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동아ST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당장 입게되는 피해는 3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가 이어질지는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80억원은 지난 한해 동아ST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394억원)과 맞먹는다. ◆**행정처분은 과연 적절한가**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에는 지난해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우려를 키웠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리

베이트 적발 시 최대 1년간 급여정지, 5년 이내 재적발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결국 4년 만인 지난 2018년 최초 발의자인 남 의원이 스스로 폐지하면서 리베이트 규제는 기존 ‘약가인하연동제’로 되돌아갔다. 복지부가 이번 행정처분에 폐지된 법안을 굳이 적용한 이유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이 2009년~2017년이기 때문이다. 법체계가 법령이 개정된 2018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행정처분이 시행될 경우, 투아웃제의 폐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llee@



/본도시락

기후변화·최저임금이 창업트렌드도 바꿨다

미세먼지로 소자본 배달가능업 확산 인건비 절감 대형·셀프업종도 '인기'

한반도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자랑하던 기후를 가졌다. 하지만 2~3년 전부터는 여름 열대야에 이어 미세먼지, 황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배달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성비가 주목받아 셀프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생겼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인기 창업 아이템도 달라지고 있다.

안정훈 진창업컨설턴트 대표는 "기후변화에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창업 아이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를 위한 배달 콘셉트인 소자본 아이템과 대형 매장의 가성비를 내세운 아이템으로 창업 시장이 나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문량이 전주보다 7.5% 증가했다. 요기도 지난 1~3일 배달 주문량이 지난달 8~10일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안 대표는 "올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이 폭염이 지속된다면 배달주문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창업비용을 줄이면서 매출 안정을 찾으려는 예비창업자들이 배달 아이템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프리미엄 한식도시락 본도시락은 계절



/진이찬방 김가네 셀프 운영시스템 적용 부스



/김가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올여름 폭염 지속엔 주문 증가"

본도시락 친환경 용기 등 배달 한식 강자로 '산지직송' 식재료 반찬 200여종

채소와 나물 등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자연의 먹거리로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면서 배달 한식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도시락은 또 전통팔도·자연·열량·별미 등 건강 키워드별 메뉴 구성은 물론 친환경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의 특별영업팀 운영도 가맹점 매출에 도움을 주는 요소다. 기업제휴나 단체 영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문과 제품 공급건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배분해 주는 게 특징이다.

반찬가게 진이찬방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창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선한 산지직송 식재료를 기본으로 200여종의 반찬을 고객 소비성향에 맞게 제공하는 게 장점이다. 진이찬방의 특징은 전국 유명 산지와 의 직거래를 통해 품질은 높이고 중간마진을 줄였다는 점이다. 저렴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가맹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진이찬

방 관계자는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킨과 떡볶이를 내세운 걸작떡볶이치킨도 높은 가성비와 배달 특징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떡볶이치킨(일명 '치떡') 세트, 숯불김떡볶이 등은 맛과 가성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른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자연 건조를 통해 쫄깃함을 유지하는 떡, 사골이 함유된 소스, 자연산 치즈, HACCP(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받은 부산어묵 등 엄선된 재료로 만든 떡볶이도 차별적 요소다.

이와 반대로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관심받는 창업 아이템도 있다. 차돌박이전

문점 일차들은 대형 매장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차돌박이를 제공한다. 최근 차돌박이 인기로 원물이 부족한 상태지만 일차들은 안정적 공급 확보를 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은 줄이고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차들은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오픈몰폼비, 오픈홍보대행비, 계약이행보증금, POS, 로열티 등을 면제해 주는 7무 창업특전을 실시 중이다.

김가네는 최근 '프랜차이즈 서울' 참가해 매장 셀프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특별 부스를 선보였다.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기본으로 김밥을 더욱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는 라이스 시트기, 김밥 토핑기 등을 배치해 참관객들이 한 눈에 매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선보인 것은 예비 창업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매장 운영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참관객들의 높은 호평을 받았다. 김가네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보다 젊은 감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가네 관계자는 "김가네는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상생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지원과 상생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과징금' 형평성 논란

>> 1면 '리베이트 제공...'서 계속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형평성 논란이다. 2017년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에 급여정지를 결정했지만, 33종에 대한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급여정지 의약품에 대체할 만한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령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진일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만 퇴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애먼 환자와 의료기관에 주는 피해다. 의료기관은 갑작스레 급여정지 의약품을 처방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체약을 구입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급여정지 시행 기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환자들 입장에서 그동안 복용해 오던 약을 갑자기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오랜 기간 복용해오던 약을 갑작스레 바꾸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특히, 만일 대체약이 기존 약보다 비쌀 경우, 피해는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구광모체제 전환 마무리, 구본준 거취 촉각

희성전자 지분 취득? LG상사 분리? 등 분분

LG전자·디스플레이 주총



구본준 부회장, 사실상 '은퇴' LG상사 광화문에 등지 '분리설'

LG가 구광모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 구본준 부회장 거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LG 권영수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진 이사회를 통해 2개사 이사회 의장도 맡게 됐다. 이미 LG유플러스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던 상황이라, LG그룹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권 부회장은 구광모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금성전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LG전자 최연소 사장과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과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구 대표와도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오며 지난해 ㈜LG로 자리를 옮겨 구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다.

LG가 구광모 대표 중심 경영 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도 여기에서 나왔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 이어 주주총회에서



(좌) LG 구본준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은 지난해 故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적극적인 경영을 펼쳐왔지만, 구광모 대표 취임후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모든 자리를 내려놓았다. /LG전자

주요 보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해 경영 투명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특히 이번 주총과 이사회는 사실상 구본준 부회장의 LG그룹 은퇴를 상징했다. 권 부회장이 맡게된 자리는 당초 구본준 부회장이 있었던 곳이다. 지난해 구 대표 취임 후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후 8개월여만에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LG그룹 계열분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LG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후계 구도가 완성되면 방계 그룹을 분할해왔다. GS와 LG가 바로 이렇게 나뉘는 그룹사다.

구본준 부회장은 구 대표의 삼촌으로, ㈜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 기준으로는 1조원 수준이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본준 부회장이 희

성전자 구본능 회장과 지분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대표 친부로 2017년 기준 희성전자 지분 42.1%를 보유 중이다. 희성전자는 2017년 기준 연 매출액 2조원 규모의 전자사다.

최근에는 LG상사 분리설에 힘이 실렸다. 지난 달 LG상사가 여의도 트윈타워를 떠나 광화문에 새로 등지를 틀었고, 15일 주주총회 후에는 트윈타워를 ㈜LG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계열분리 회사들이 자리를 옮겼던 만큼, LG상사의 이동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구본준 부회장은 2007년 LG상사를 3년여간 경영한 바 있다. LG상사 자회사 중에는 내부 거래 비중이 많은 판토스가 있는 만큼, LG와 구본준 부회장 이 서로 '원원'할 수도 있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가 대폭 물갈이

된 것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LG 이재원 통신서비스팀장이 새로 기타비상무이사에 맡았다. 이정회계법인 양일수 대표도 새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새로 부임한 윤춘성 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도 겸임한다. 윤 대표는 1989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정통 LG상사맨으로, 구본준 부회장이 LG상사를 경영하던 2008년 정기 인사에서 임원 승진했다.

단, 낮은 가치는 걸림돌이다. LG상사는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6800억원 수준, ㈜LG 보유 지분은 2018년 3분기 기준 24.69%에 불과하다. 소액주주 비율이 61.97%에 달한다. 구본준 부회장이 ㈜LG 지분 1조원 수준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 /김재용 기자 juk@

주주 80만명 국민株... 이슈는 박재완 사외이사 선임

(前 기재부장관)

삼성 주총 D-1, 관전포인트는

소액주주 vs 대주주 표 대결 '귀추' 사외이사 선임 관련 '독립성' 논란 '전자투표제' 여전히 도입 검토중

한국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은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표 대결, 사외이사 선임 등 '독립성' 문제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액면분할 후 첫 주총... 소액주주 목소리 높아질까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정기 주총은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 자빌딩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주주 참석을 제한하고 관심을 분산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총이 열린 오는 22일 금요일을 피했다. 삼성SDI와 삼성SDS 등도 같은 날 주총을 연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총은 지난해 3월 50대 1 비율의 발행주식 액면분할 안건 통과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총에서 지난 1975년 6월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처음으로 액면분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액면분할 이후 주가는 급락했지만, 주주는 대폭 늘면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먼저 지난해 250만원에 달하던 주가가 50분의 1로 내려가면서 일반 투자자 접근이 수월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실질주주는 지난해 말 78만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15만8000여명) 5배 늘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주총 자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800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총장 옆 주좌석에는 중계 설비도 갖추기로 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다만 주총장 분위기는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소액주주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경영진·대주주 기업 운영 건에 맞서는 등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주가 하락과 함께 실적 부진, 주주 친화정책 등에 대한 불만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4월 말 5만 3000원대에서 지난 1월 3만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시장도 악재를 맞으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지난해 같은 분기(15조6422억원) 절반인 7조원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런 실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 안건도 이번 주총에서 빠졌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대법원은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 최종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대법원 상고심 판결 후이나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 '반대' vs 기업 '소신'... 사외이사 선임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한조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안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안건〉

1호	재무제표 승인	50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2-1호	사외이사 선임	박 재 완 후보 재선임 김 한 조 후보 선임 안 규 리 후보 선임
2-2호	감사위원 선임	박 재 완 / 김 한 조 후보
3호	이사 보수한도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대상 총 465억 원

규리 서울대 대외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지만, '이사회 독립성' 논란은 여전하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1996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성균관대는 삼성그룹 소속 공익 법인으로 분류된다.

일부는 박 전 장관 재선임에 대해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난 15일 '국내의 주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내역에 따르면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지적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성대 교수직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도 '사외이사 반대'에 직면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 특수관계법인 호암재단에서 사회봉사상 부문 호암상을 받았다. 당시 상금은 3억원과 순금 50톤 메달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해 "아쉽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상장사 추세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구설에 오른다. 삼성 전자는 지난 2010년 전자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9년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 전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일 기관으로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다.

이외에도 이번 주총에선 유보 현금 사용에 대한 주주의 질의·요구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4조2100억원이다. 2017년 말(8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4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인수·합병은 지난 2016년 11월 음향 전문 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잠잠한 상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靑 국민청원... 공시가 제한 법안도

» 1면 "조세저항" 거센 반발...서 계속

시장 '잡잡'... 당분간 거래 절벽 지속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에 거세지자,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전년 대비 변동률, 다른 지역과 형평성, 특수성 등을 의무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조세정의 실현"...실효성은?

반면 무주택자 등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한 청원자는 "집값은 수억 원 올랐는데 세금은 수십만 원 오른셈"이라며 "투기근절하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무주택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

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급매 등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 기초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일단 잠잠한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예상했던 수준이라 크게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주택 보유자들이 드물다"라며 "당장은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당신의 봄

대한민국 모두의 안전한 365일을 위해

천만다행

예상치 못한 일이 가득한 하루 하루지만
정신 없는 출근길부터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생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테니까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4대 금융그룹 주주에 2.5조 폰다

外人 잔치 vs 주주가치 제고... 高배당의 '두 얼굴'

작년 배당금 전년 비 8.8% ↑
순이자마진은 일제히 하락세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에 배당 확대
고배당,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도

〈4대 금융지주 배당금 총액〉

금융지주	2017년	2018년
KB금융	7,667	7,597
신한금융	6,875	7,530
하나금융	4,588	5,705
우리금융	3,366	4,376

단위: 억원

(자료=각 사)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인 배당잔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혼재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배당금이 2조5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2조5209억원으로 전년보다 8.8%가 증가했다. 각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의 배당금이 7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7530억원), 하나금융(5705억원), 우리금융(437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금융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KB금융(24.8%), 신한금융(23.5%), 우리금융(21.5%) 순이었다.

26.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배당성향이 낮아진 우리금융을 제외하더라도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배

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올해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앞두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금융지주가 이처럼 배당을 확대한 데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요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국민의 투자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이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금융지주가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



M)이 하락해 올해 주요 금융지주의 수익 또한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이번 배당이 정부나 외국자본에 등떠밀린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4분기 KB국민은행의 NIM은 1.72%에서 1.70%로 하락한데 이어 신한은행 또한 1.62%에서 1.61%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NIM 또한 1.53%에서 1.51%로 감소했으며,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의 NIM만이 1.55%에서 1.56%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의 배당 확대 정책이 외국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1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

은 하나금융이 70.18%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67.31%), KB금융(66.19%), 우리금융(27.4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정부나 기관투자자가 아닌 업황과 경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높은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 즉 이익잉여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고배당 정

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며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은 적정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또한 "카드 수수료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플랫폼의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수수료 축소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환경에서 고배당 정책은 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씨티 NEW 캐시백 카드' 환급·적립 강화

Advertorial Corner

씨티은행 실적 상관없이 혜택 확대

한국씨티은행이 '씨티 NEW 캐시백 카드'의 고객혜택을 확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8일 '씨티 NEW 캐시백 카드'는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일시불 및 유이자 할부금액에 대해 건별 사용금액의 0.7%를 캐시백해 준다고 밝혔다.

전월 총 사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국내 온라인 가맹점 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온·오프라인), 휴대폰 자동이체 금액의 7% 특별 적립 혜택이 가능하며 월 최대 2만 5000 캐시백까지 제공된다. 또 연간 사용실적이 600만원 이상이면 연간 보너스 캐시백으로 1만 캐시백이 제공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백=1



원으로 환산해 고객의 결제계좌로 자동 현금 입금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선호하는 실속파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기본 캐시백은 전월실적 조건이나 적립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캐시백 적립이 쉽고, 적립된 캐시백도 현금 자동 환급되도록 해 캐시백 사용 대한 편의성이 많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우리은행 사회초년생 위한 '첫급여 우리통장'

은행수수료 면제·대출 금리우대 등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대 조건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은행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수취한 고객은 급여일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가 면제

되며, 타행 수수료는 5회가 면제된다. 특히, 3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타행 수수료가 한 달간 횡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또한 첫급여 우리통장을 발급받은 후 1년 이내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는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고객에게는 제주도 소재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홍민영 기자

신한銀, 신남방진출 기업 응원... 컨설팅 제공

'글로벌 경영 컨설팅' 대상 국가 확대 투자·입지분석·세무 등 맞춤 서비스

신한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을 아세안(ASEAN) 지역과 인도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한 글로벌 경영 컨설팅은 그동안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60여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을 통



해 아세안 및 인도 지역에 ▲현지법인 또는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 ▲거래처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입지 분석, 시장 환경, 노무, 세무 등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팀은 해당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지역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성공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IBK기업은행 'IBK창공 부산' 1기 혁신 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IBK창공 부산' 1기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총 15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육성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터 선보연젤파트너스와 연계한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5월 중 최종 선발 기업을 발표한다.

/나유리 기자

"비대면 투자설계 받으면 경품 혜택"

NH농협은행 '스마트핀 해봄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 NH스마트핀의 설계 및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핀 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NH스마트핀(Property&pension Investment Manager)은 농협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산설계 ▲연금설계 ▲투자설계 ▲올(All)100플랜(은퇴설계 자가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설계'는 연령별 최적 자산배분안을 제시한다. '연금설계'는 고객이 퇴직금만 입력하면 시뮬레이션해 적정 연금수령액과 기간, 절세효과를 한 눈에 보여준다. '투자설계'는 투자성향에 따라 농협은행이 자체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Pro)'와 농협은행의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의 펀드·퇴직연금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올100플랜(은퇴설계 자가진단)'은 은퇴시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춘 필요·준비자금을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에 NH스마트핀의 투자설계 시스템에서 펀드와 퇴직연금 추천 포트폴리오 설계만 받아도 5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5G시대 창과 방패 싸움... SKT, '양자암호' 철통방어

〈해킹〉

〈보안〉

현존 보안기술 중 '가장 안전' 패턴분석 불가능한 숫자 변환 '갤럭시S10 5G' 지원 협의회 2022년엔 무선까지 적용 가능

"5G 시대가 도래하면 430억개의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그만큼 수백만 개의 문이 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본격 도입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보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방패를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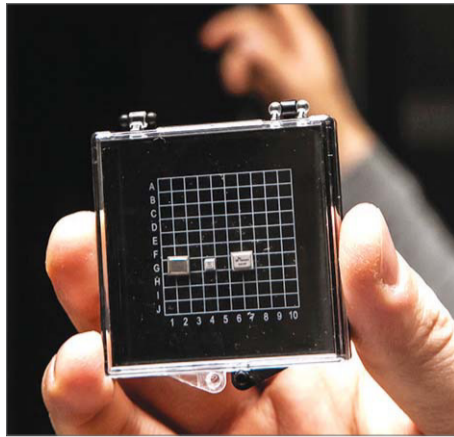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쫓을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key)를 만들어 도청을 막는 통신 기술이다. 현존하는 보안 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신암호화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SK텔레콤은 18일 이달 5G 통신망에 양자 난수생성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달 중에는 통탐에불부선(LTE)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5G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SK텔레콤 이용 고객들은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SK텔레콤은 전 세계에서 가장



SK텔레콤 Global Tech, Alliance 팀 심동희 리더가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직원이 가입자 인증서버에 적용된 양자난수생성 칩을 들고 있다. /SK텔레콤

안전한 5G 통신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통신 방식에서는 공 모양의 정보를 제3자가 가로채고 복제본을 전달해도 탈취 여부를 알기 어렵다. 양자암호통신은 비눗방울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같아 제3자가 비눗방울을 건들기만 해도 형태가 변형돼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5G 가입자 인증서버에 양자난수생성기(QRNG)를 적용했다. 양자난수생성기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패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장치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의 위험을 원천 봉쇄한다. 가입자 인증 과정은 단말 이용자가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모든 음성, 영상 데이터, 문자(SMS) 등을 주고받기 전 정상 가입자로 인증을 받는 최초이자 필수 단계다. 인증키 값이 유출될 경우 고객 정보도

청, 해킹 등 범조에 쓰일 수 있어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가 상용화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디바이스 개수가 늘어나 보안 침해 가능성이 늘어난다"며 "데이터 속도와 양도 중요하지만 어느 사업자가 보안 완결성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5G 통신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

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내달 전국 데이터 트래픽의 핵심 전송 구간인 서울-대전 구간에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연동해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을 강화한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암호통신의 핵심기술로 송신부와 수신부만 해독할 수 있는 도청 불가능한 암호키를 생성한다.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S10 5G'와 같이 조만간 출시될 5G 단말도 양자암호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회의에서 SK텔레콤이 제안한 '양자키 분배를 활용하는 양자암호통신 관련 신기술' 2건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양자암호키 관련 국제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공동편집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곽승환 IDQ 부사장은 "현재는 유선통신에만 양자암호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2022~2023년 위성을 발사하면 무선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성은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도 실험 위성에 성공했으며 미국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민기자 silkni@metroseoul.co.kr

포스코 인터, '대우' 떴고 새출발

그룹 편입 10년... 사명 변경 확정

포스코대우가 18일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새로운 사명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인터내셔널'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0년 포스코그룹 편입 이후 그룹의 지원 아래 그룹사들과 과시너지를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그룹 편입 10년차

맞아, 포스코 그룹 일원으로 소속감을 고취하고 그룹 일체감을 제고하며,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사장은 "오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출범은 포스코 그룹사로서의 일체감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룹 해외사업 시너지 창출과 선도에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의 본연인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룹의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가 포스코그룹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발, 2010년 포스코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오랜 기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와 8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Top 종합사업회사'를 향해 도약해 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광주시, 공기산업 '맞손'

생산·상생·일자리 '세마리 토끼' 노린다

LG전자가 공기 정화 사업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광주광역시와 동참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다. LG전자 송대현 H&A사업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MOU는 참여기관 3곳이 공기산업 관

련해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생산·제조 분야 협력적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증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센서와 필터 등을 연구해 공간별 특화 공기정정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련 기업들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항도 담았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노령 인력을 대상으로한 유지보수 관련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juk@



카드의 정석 Sso3 CHECK

- 저녁 6시~12시 모든 음식점(주점 포함), 노래방 5% 캐시백
- 저녁 6시~12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5% 캐시백
- 대형할인점, 편의점, 부티스토어, 주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5% 캐시백
- 해외 이용 금액 0.5% 캐시백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시 제공 (실적/적립 제외는 상품안내장 참조)
-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최대 3%(b).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저금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준법심의필 2018-A01985(2018.12.21/유효기간: 2019.12.31)

충전소 미비한데... 현대·기아·르노, LPG車 경쟁 예고

현대, 신형 쏘나타 LPG모델 준비
기아, 완전변경 K5에 라인업 추가
르노삼성, 국내 첫 LPG SUV QM6
정부 규제완화에 LPG 라인업 강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증가 우려도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차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는 LPG차량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전소 부족과 LPG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완성차 업계 라인업 강화...소비자 선택 폭 넓혀

현대차는 상반기 중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은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완전변경(풀 체인지)이 예정된 K5를 출시 초기부터 일반인용 LPG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3개사는 각사의 주요 '볼륨 차종'(많이 팔리는 차종)에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모델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는 '쏘나타=택시'라는 인식을 깨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을 대폭 늘렸다. '도넛형'은 르노삼성이 2014년 대한LPG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장착함에 따라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준다.

르노삼성은 승용 LPe 모델 모두 '도넛 탱크'를 탑재해 큰 여행용 가방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어 택시와 렌터카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은 앞서 2017년 10월 규제완화 때 일반인도 LPG SUV를 살 수 있게 된 이후 QM6 LPG 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QM6는 국내 판매 중인 SUV 가운데 유일한 LPG 모델이 된다.

여기에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할 경우 유류비 절감은 기대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형 쏘나타를 기준으로 LPG 모델의 공인연비는 10.3km/L로 휘발유 모델(13.3km/L)보다 낮지만 가격은 L당 797.8원(오피넷 3월 2주차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1359.3원)보다 낮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조건에서 쏘나타 LPG 모델의 연간 유류비는 116만1859원으로 휘발유 모델(153만3067원)보다 25% 적게 든다.

◆'보여주기식 행정' 논란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규제없이 구매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PG 충전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충전소와 생산·저장 설비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 LPG 충전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기준 서울 전역에 LPG 충전소는 77곳이며 전국으로 확대해도 1948곳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501곳, 전국 1만

1540곳에 달하는 주유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LPG 충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LPG 충전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충전소 건설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PG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의 SM6의 경우 디젤은 CO2 배출량이 109g/km인 반면 LPG차량은 141g/km으로 높다. K5도 디젤 116g/km, LPG 138g/km로 차이가 난다. 결국 이산화탄소 증가로 미세먼지 만큼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반갑지만 아쉬움도 있다"며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가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KT, 5G기반 UHD 생방송 최초 공개

오늘 SBS 모닝와이드 3부 중계

KT는 5세대(5G)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초고화질(UHD) 생방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오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생방송을 최초로 공개한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UHD 생중계는 KT의 '기업 전용5G' 서비스와 '5G MNG' 장비를 활용한다. MNG는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방송사들은 중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평균 5개에서 11개의 유심이 장착된 통터에볼루션(LTE) 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방송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러 통신사의 유심이 장착된 LTE MNG 장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되고, 네트워크가 원활한 통신사의 망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분할 전송한다. 이 같은 LTE MNG 장비로 방송 중계를 할 경우 LTE 네트워크에서는 영상전송 및 서버에서의 영상처리 시간 등의 요인으로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품질 저하 등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했다.

KT의 기업전용5G 서비스가 적용된 5G MNG는 5G 유심 한 개만으로 초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일반망과 분리된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를 통해 UHD 영상 지연을 최소화해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 '상업용 디스플레이' 10년 연속 1위

작년 판매량 기준 25.8% 시장 점유

삼성전자가 10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켜냈다.

18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25.8%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1위다. 2009년 처음 1위를 기록한 후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시장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가운데, 회의 솔루션 '삼성 플립'과 양면형 '세미아웃도어 사이니지', 쿼터 프로세서 8K를 이용한 QLED 8K 사이니지 등 제품을 출시하며 혁신을 주도해왔다.



미국 NBA 경기장에 설치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 제품인 '더 월'과 시네마 LED '오닉스' 등을 출시

하며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 권도 예약해놓은 상태다.

/김재용 기자 juk@

SK브로드밴드, NCSI 9년 연속 1위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 부문
차별화된 경험 등 고객가치 혁신

SK브로드밴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에서 9년 연속 초고속인터넷 부문과 인터넷TV(IPTV)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NCSI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고객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량화한 지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본원적 품질을 높이는 노력 외에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객가치를 적극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B tv를 통해 '살아있는 동화', '플레이싱스 홈' 등 키즈 대상 서비스와 국내 최초 시니어 전용관 'VIV



A 시니어' 메뉴를 개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1인 콘텐츠 제작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팟캐스트를 B tv에서 영상으로 제공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5기가 인터넷 상용화 이후 5기가, 10기가 인터넷 또한 국내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정유업계, 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강화

국내 정유사들이 신규 사업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유가에 울고 웃는 기존 정유 사업 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을 다양각색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자 역량을 모아 배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우선 최근 SK는 지난해 말 미국 배터리 개발 업체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 287억원을 투자해 지분 13.1%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이 두 배가량 높은 리튬 금속배터리 관련 기술 등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현재 우주항공 제품에 쓰이는 초경량 배터리를 개발, 내년에는 기존 배터리 셀 대비 용량은 두배 늘리고 크

기는 반으로 줄인 배터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K그룹이 전자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룹에서 배터리 사업을 맡은 SK이노베이션도 해외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한국 서산공장을 포함해 유럽, 중국, 미국에서 각각 공장을 배터리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을 결정하며 9452억원의 투자를 결의했다.

GS칼텍스는 주유소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GS칼텍스는 LG전자와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GS칼텍스는 기존

에 제공했던 주유·정비·세차 서비스 이외에 전기차 충전, 전기차 세어링, 전기차 경정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와 세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융합해 모빌리티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 택배 '홈픽'도 GS칼텍스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홈픽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주유소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선보이는 택배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든 1시간 이내 방문 픽업'이라는 특징점을 내세운다.

GS그룹의 또 다른 주력 계열사인 GS에너지도 정유·화학, 전력·집단에너지, 천연가스 공급 외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m6326@

With POSCO

Go Together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치를 발견하고 기회를 창조합니다.

포스코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범한 이래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더 커진 역할과 새로운 비전의 실현에 걸맞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8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철강, 자동차부품 등
상품의 거래는 물론 에너지 생산과 미래식량산업 등의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제 트레이딩을 넘어, 회사의 지속성장과 세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posco
INTERNATIONAL

증시이끌 차세대 스타는? LG화학·모비스·SDS 등 주목

경기침체 이후 본격 회복되면
2등자리 경쟁기업 추가 매력적
LG화학·모비스 등 B2B에 주목

흔히 시가총액이나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을 1등주, 그 다음 순위 기업을 2등주라고 한다. 한국증시 부동의 '스타라이커'는 삼성전자다. 하지만 최근 주시시장에서 2등주와 3등주의 주가 반응을 보면 서로 앞치락뒤치락하며 시소계임을 벌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라이징 스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장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2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기업의 주가는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및 회복의 초기 국면에는 1등주가 강세를 나타낸다. 극도의 경기 침체 이후 회복 초기에는 수요가 제한된 상황이라서 절대 강자만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2, 3등주가 우세해진다. 즉, 경기 침체 국면에는 업황의 악화 정도가 더 크고 경기 회복 국면에는 업황의 개선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7년, 2011

(거래 고객 기업수가 늘어나면서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B2B 기업)

종목명	시가총액(조원)	시가총액 순위	매출증가율(% YoY)		연간 거래 고객 기업 수			
			2018년	2019년(E)	2018년		현재	
					전체(개)	해외 비중(%)	전체(개)	해외 비중(%)
LG화학	26.2	3	9.7	11.9	139	46.0	135	49.6
현대모비스	20.2	14	0.0	3.7	40	50.0	41	48.8
삼성에스디에스	17.6	19	7.9	9.4	52	15.4	51	15.7
현대중공업	9.2	34	-15.2	8.0	119	60.5	118	60.2
현대글로벌비스	4.8	63	3.1	4.7	38	13.2	38	13.2

(자료=Bloomberg,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년, 2017년은 공통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또 이 시기에 시가총액 2등주의 순위 바뀜도 있었다.

2007년은 한국전력에서 POSCO로, 2011년 POSCO에서 현대차로, 2017년은 현대차에서 SK하이닉스로 순위가 달라졌다.

특히 POSCO와 SK하이닉스 같은 B2B 기업의 순위 바뀜에 시장은 주목한다. 두 기업은 모두 매출확장을 통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7~2008년 POSCO의 매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1%와 40%(같은 시기 코스피 10%와 24%)에 달했다. SK하이닉스의 2017~2018년 매출증가율은 각각 75%와

34%(코스피 10%와 -14%)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두 기업의 매출 확장은 거래 고객 기업 수 확대가 배경이었다. 2007년 POSCO의 거래 고객 기업 수는 18개에서 2009년 104개로 늘어났다. 2016년 SK하이닉스는 42개에서 2017년 58개로 증가했고, 특히 해외 거래 고객 기업 비중이 55%에서 70%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한국증시를 이끌 '알파'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B2B 중 향후 시가총액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업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거래

고객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다변화되면서 매출은 2018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POSCO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B2B기업으로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중공업을 꼽았다.

현대차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B2C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에도 이유는 있다. 바로 마진을 개선이다. 현대차의 2010~11년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8.8%에서 10.3%(코스피 7.5%→6.3%)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1.9%에서 16.2%(코스피 5.3%→6.0%)로 좋아졌다. 당시 현대

차의 글로벌 자동차시장 판매 비중은 7.8%에서 8.6%로 늘어났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78%에서 75%로 낮아졌다.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동종 기업 내에서 매출 비중은 7%에서 13%까지 높아졌고, 매출원가 비중은 30%에서 24%로 낮아졌다.

최근 KT&G, CJ제일제당, 힐라코리아, 스튜디오드래곤, 한국콜마 등의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

가격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떨까. 1등주가 유리하다. 1등주의 2등주 대비 주가 반응을 보면 미지근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어서 성장 모멘텀보다는 가격 모멘텀에 더 관심이 가는 시기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등주는 성장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1등주는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니 최종 승부는 밸류에이션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에는 이익의 성장성과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성장성이 높으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변동성이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주총 전자투표제 이벤트

NH투자증권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에 탁월한 K-eVote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주주 중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전자투표 가능기간인 3월 2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 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내일 투자전략 세미나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5층 연수실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경제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전략부 정현중 연구위원과 백찬규 수석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며, 첫번째 시간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두번째 시간에 '투자전략 및 유망 종목을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선착순 50명까지 무료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로부터 한다. /김문호 기자

초기 벤처기업, 공정가치 아닌 原價평가 허용

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심사 추진 실적·투자기간·특성 고려해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원가 평가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회계심사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의 한계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심사방안은 감독지침의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된다.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실적 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해준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이나 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한다.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과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류사

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을 권고해 적시에 정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나 실적을 내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요건 충족시 종과실로 판단하도록 해 종과실 판단 범위도 제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

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고의 분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의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신(新) 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감사인 간 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1@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증권사 한자리에

한양증권 바이오포럼 개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한양증권 바이오포럼(IPIR 2019-Season1)'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도 한층 더 확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포럼은 파생신, 에이비엘바이오, 엠클론, 와이바이오로직스 등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와 자본시장의 눈높이와 니

즈를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에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 관계자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창투사 애널리스트, 심사역 등 투자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파생신은 완전인간 scFv 파아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HuPhage)를 통한 단일·이중·다중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 구축 관련 원천기술을 소개하고, 현재 국내외에서 임상개발을 진행 중인 TTAC-0001 항체치료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 ADC 및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쟁우위와 항



지난 15일 열린 '한양증권 바이오포럼(IPIR 2019-Season1)'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양증권

후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한양증권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IR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3월 공동 바이오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격월로 총 5회에 걸쳐 우수 바이오 헬스케어 상장사와 비상장기업들을 이원화해 시장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5일 한양증권

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바이오헬스 산업 자본시장 연계 강화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양증권은 최근 43년만에 CI를 변경하는 등 '강소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김문호 기자

규제에 발목잡힌 초대형IB 자본달리는 中企특화 증권

초대형IB 新사업인가 불허 잇따라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시선집중
중기특화, 2기도 별다른 성과 없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초대형 IB는 각종 규제에 막혀 신(新)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중기특화 증권사는 여전히 대형증권사의 자본력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한다. 인가안이 통과할 경우 KB증권은 내달 초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초대형IB의 탄생이다.

◆초대형IB 4년차, 아직도 2곳만...

지난 2016년 8월 금융위가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초대형 IB 최소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을 인가받은 증권사는 2곳에 불과하다.

KB증권은 지난 2016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됐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발행어음 인가를 자진 철회했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배당사고' 여파로 2021년까지는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또한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그룹 내 '내부거래' 문제로 관련 사업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도 순탄치 않다. 발행어음 1호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SPC설립을 통해 최대원 회장과 TRS(총수익수입)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과 금융위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초대형 IB가 각종 규제에 새로운 사업 진출이 번번히 가로막히면서 증권사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자본력에 밀리는 '중기특화'

지난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중·벤처기업 금융 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도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 펀드 도입, 신규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중기특화 1기로 선정된 6개 증

(초대형 IB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추이)

(단위: %)

운용회사	2018	2017	2016	2015
한국투자증권	11.72	11.36	6.62	7.9
삼성증권	7.14	6.29	4.48	7.43
미래에셋대우	5.55	6.06	-	-
NH투자증권	6.59	7.52	4.63	4.59
KB증권	5.35	6.41	-	-

/자료=각사 공시

권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채 마무리되자 지난해 5월 유안타·유진·코리아에셋·키움·IBK·SK 등 6개 증권사를 2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하며 혜택을 강화했다.

주요 혜택은 중·벤처기업 대출 시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제도 등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대출채권잔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했지만 중기특화증권사는 예외로 해준 것이다.

하지만 2기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증권사의 '진입장벽'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진·유안타·SK증권 등의 기업공개(IPO) 주관 건수는 각 2건 등에 그쳤다. IBK투자증권(4건), 키움증권(9건)이 다소 약진했다. 하지만 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각 14건), 미래에셋대우(13건), NH투자증권(11건) 등 대형사와 비교하

면 우월한 수치다.

더욱이 대형증권사들이 중소기업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중기특화 증권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KB증권은 SME(중견중소기업) 금융 본부를 운영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캐피탈 등 계열사와 함께 중·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역시 약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의 영업망을 이길 수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메리트(장점)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1호 개원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18일 경남 거제시와 함께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김한표 거제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거제시 아주동에 건립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964㎡(290평) 규모로, 총 13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공공보육 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거제시의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이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건물 구조와 내부 시설 구비, 반 운영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왼쪽 세번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두번째), 변광용 거제시장(네번째)이 18일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식을 갖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까지 장애아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건립, 운영됨으로써 국내 부족한 장애 영유아 보육 시설의 이용 기회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거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아주하나어린이집 건립 지원은 조선 산업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있는 거제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는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이 거제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시에 세워진 아주하나어린이집을 통하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장애아 비장애아의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통해 우리 미래인 어린 새싹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문호 기자 kmh@

원·달러 상승에 매도 확산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36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해 11월 750억 5000만달러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12월 744억6000만달러로 내렸다. 이후 1월 말 745억2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 달 다시 감소한 것이다.

2월 달러화예금(625억달러)은 기업수입대금 지급,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으로 전월 대비 1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달러당 1112.7원에서 2월 말 1124.7원으로 올랐다.

엔화예금(45억5000만달러)은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현물환 매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원·100엔 환율은 2월 말 1015.4원으로 1월 말(1022.8원)보다 떨어졌다.

유로화예금(37억1000만달러)은 전월 대비 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위안화 예금(11억9000만달러)은 2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홍콩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은 17억3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 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630억5000만달러)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106억3000만달러)이 각각 7억7000만달러, 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92억1000만달러)이 5억1000만달러 감소했고 개인예금(144억7000만달러)은 3억3000만달러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9@

외국인, 국내주식 3개월째 순매수세

지난달 1조6480억 매수... 우위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648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조원, 6000억원 규모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매수 우위를 지속 중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매수 규모가 9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동과 아시아가 각각 2000억원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은 100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버진아일랜드가 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 했고, 룩셈부르크와 영국이 각각 4000억원씩 사들였다. 호주와 덴마크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순매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는 563조7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2.1%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유럽 164조4000억원(29.2%) ▲아시아 67조4000억원(12.0%) ▲중동 19조7000억원(3.5%) 순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조8600억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계기준)

구분	'18년			'19년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1월	2월	보유잔고		
주식	△6,678	△3,900	△2,778	5,382	3,734	1,648	563,691
채권	15,625	12,021	3,604	△3,931	△3,739	△192	109,975
합계	8,947	8,121	826	1,451	△5	1,456	673,666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원을 순매수했지만 2조5200억원 만기상환으로 인해 총 192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 1월 순회수로 전환한 이후 순회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10조원으로 상장잔액의 6.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6000억원 순회수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47조2000억원(전체의 42.9%) ▲유럽 37조2000억원(33.9%) ▲미주 9조3000억원(8.4%)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국채에는 1조3000억원을 순투자했지만 통안채에서는 1조4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중, 곧 대우조선 실사... 거제지역 반발 수위 '촉각'

거제시 “매각반대 동참 어렵지만 노동·시민단체 최대한 지원키로” 대우조선해양 노사교섭으로 진통



18일 오후 부산 중구 KDB산업은행 영남지역본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쟁의대책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시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 계획을 내세웠지만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노조 측의 매각철회 요구로 앞으로 있을 노사 간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거제시도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노조의 제언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재무, 회계, 기술력, 연구개발, 영업력 등에 대한 실사에 돌입한다. 아

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장실사 과정에서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지

난 13일 거제시청 변광용 시장 집무실을 항의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17일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제시청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매각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역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집무실 집기가 파손됐지만 거제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노조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매각반대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거제시의 설명이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매각반대에 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사교섭 문제와 관련해서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대

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해 맺은 단체협상이 이달 말에 종료돼 올해 새로운 노사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단, 올해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했기 때문에 임금교섭만 실시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교섭개시 요구를 사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임금 인상을 포함해 매각철회 건까지 제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이해관계로 결정된 것인 만큼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각철회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매각철회 건이 제시된다면 당장 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교섭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가맹점에 끌려가는 카드사 한국GM·르노삼성도 수수료 '반기'

유통·이동통신·항공 등과 협상 잇단 초강수에 '동네북' 신세로 카드업계 “금융당국은 뒷집 뿐”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유통과 이동통신, 항공 등 초대형 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주 카드사들이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투항하면서 분위기가 대형 가맹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와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기를 든 이후 완성차업체가 또 수수료 인상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신한·KB국민·현대·하나카드 등은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1월 말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9%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나 현대차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제시한 1.89%로 올리는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카드사들이 물러났다.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고배를 마신 카드사들은 통신·유통·항공업계 대형 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인상 협상에 들어간 상태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한 한 번 완성차업체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 협상 결과가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가

맹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 계약해지라는 강경대응에도 카드사의 투항으로 끝난 만큼 ‘일단 강하게 나가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3년마다 이뤄지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을’에 위치해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 및 이동통신, 항공 등과의 수수료 협상은 완성차업체 만큼 카드사의 완전한 투항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통신 업계 등은 자동차 업계에 비해 카드사용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마케팅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두기 어려울 것 이란 분석이다.

최근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통신사들은 지난달 카드사가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로 다소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유통, 통신 업체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고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나 이는 항상 진행되던 일상적인 현장 점검에 불과하다”며 “설령 일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이 있었는지 점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똑똑해진 신형 쏘나타, 카카오AI로 날개 달다

음성인식 비서 ‘카카오’ 최초 탑재 뉴스·날씨·영화·환율 등 정보 제공 에어컨·히터 등 공조장치 제어 가능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가 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카카오는 21일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 기술을 탑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운전 중 간편한 음성 명령만으로도 다양한 비서 기능과 차량 제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커넥티비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현대자동차의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와 카카오의 AI 플랫폼인 카카오 i 기술을 접목해 음성인식으로 다양한 비서 및 차량 제어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된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뉴스 브리핑 ▲날씨 ▲영화 및 TV 정보 ▲주가 정보 ▲일반상식 ▲어학·백과사전 ▲스포츠 경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외국어 번역 ▲환율 ▲오늘의 운세 ▲자연어 길안내 등 10여 가지 이상이다.

운전석의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지금 핫한 뉴스 들려줘”, “내일 날씨 어때?”, “꽃샘추위 영어로 뭐야?”, “캡틴마블 줄거리 알려줘” 등을



21일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 기술이 탑재된다. /카카오



/연합뉴스

물으면 인공지능이 해당 답변을 찾아 말해주는 식이다.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 내 공조장치 제어도 가능해졌다. 에어컨, 히터, 바람 방향 등을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기 청정모드 실행해줘”, “습기 제거해줘” 등

의 명령은 물론, “바람 세게”, “바람 방향 좀 쪽으로”와 같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이에 맞춰 조절해준다.

카카오와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주요 서비스들을 계속 추가하고, 음성인식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적용 차량 범위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추교웅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 상무는 “이번 협력의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기능 확대에 나설 계획이며, 미래 커넥티드카 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감성학 AI 랩 총괄 부사장은 “주행중 제약이 있는 차량 내 환경에서의 혁신을 위해 자동차 영역 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2514@

“인천공항 가는 길, 휴대폰 고장 걱정 NO”

삼성전자서비스, 영종센터 개소 15분 거리... 외국어 가능 직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업계 최초로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고객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운서역 인근에 위치한 ‘영종 휴대폰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어 고객 접근성이 용이하다.

영종휴대폰센터 신설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종휴대폰센터에는 외국어(영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도 배치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과거에는 해외 출국 직전에 휴대폰이 고장 나면 인천에 있는 서비스센터까지 가야 했다”며 “영종국제도시에 서비스센터가 신설되면서 출



삼성전자서비스가 영종휴대폰센터를 개소했다. /연합뉴스

국 시 휴대폰 점검이 긴급히 필요한 고객은 물론 해외여행 중 휴대폰 침수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도 귀국 직후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서운 기자

www.pdna.co.kr

다시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 디 엔 에 이 크림 & 세 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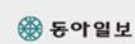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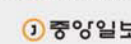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이커머스업계 '선택과 집중'



로켓배송 “더 빠르게!”

최저가 노려 “더 싸게!”

이커머스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표 주자 쿠팡과 위메프가 서로의 강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쿠팡은 어느 지역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위메프는 업계 최저가를 정면에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

◆배송은 업계 최강!

지난해 5조원대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로 업계 최강자로 올라선지 오래다.

최근에는 쿠팡의 월 카드 결제금액이 1조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한국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이터를 표본조사한 결과, 쿠팡은 지난해 1월 5710억의 카드 결제금액을 기록했으나, 매달 결제금액이 증가해 작년 12월 1조 176억, 올 1월에는 1조 515억의 결제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측정하지 않은 쿠팡의 로켓페이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무통장 입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총 결제액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자는 올 1월 기준으로, 872만 명이 1회당 평균



쿠팡 김범석 대표 /쿠팡

39,600원씩 월 3회를 결제해 월 12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의 경쟁력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다. 이에 가장 많이 투자한 부분은 물류 인프라 구축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받은 것에서 상당수가 물류 인프라 확장 및 개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입·출고 시점과 상품 크기, 직원 동선을 고려한 '랜덤 스토(Random Stow)'를 통해 60여 개 물류 네트워크를 거

쿠팡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
쿠팡맨·플렉스 등 배송기사 운영

위메프

매달 특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
모바일 평균 체류시간 업계 1위

쳐 전국적으로 배송한다.

또한, 자체 배송기사인 쿠팡맨 외에 지난해 8월부터는 일반인들이 본인 자가용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5일 쿠팡은 미국 월마트 출신의 법률 전문가 제이 조르겐센(Jay Jorgensen)을 최고법률책임자(General Counsel) 겸 최고윤리경영 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로 신규 영입했다. 조르겐센 CCO는 고객감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가격으로 승부!

위메프는 '업계 최저가'를 외치며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위메프 박은상 대표 /위메프

를 앞두고 11일간 실시했던 '블랙 1111데이'가 인기를 끌자 이후에도 매달 특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거래액 5500억원을 돌파,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3.3% 증가한 수치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메프의 PC와 모바일 방문자 평균 체류시간은 지난 1월 평균 79.6분으로 6개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1위다. 위메프를 제외한 주요 이커머

스의 평균 체류시간은 51.9분이다.

체류시간이 길어진 원인으로는 '특가 정책'이 꼽히고 있다.

관계자는 "위메프는 데이, 히든프라이스 등 가격 혜택에 최대한 집중해 더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번 구르면 빠른 속도로 덩치가 커지는 눈덩이처럼 빠른 성장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다시 가격에 투자해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쇼핑채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위메프는 매주 수요일 비공개 특가서비스 히든프라이스의 '다산데이'를 진행, 인기 브랜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 대비 최대 58%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다산데이에서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LG 미니빔, 에어팟 등 다산데이 추천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자정부터 2시간 간격으로 배포되는 쿠폰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해당 제품 결제 시 최대 58%까지 추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쿠폰 발급 및 사용 방법은 히든프라이스 모바일앱, 포털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둘째 출산 땐 200만원+월 10만원 학자금

롯데, '일하고 싶은 회사'로 도약
부산서 첫 기업문화추진 정기회의

롯데는 올해 신입사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 축하금·유치원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의욕과 몰입도를 높여 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생명존중 운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만전을 기한다.

롯데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통 강화, '워라밸' 문화 확산, 일하는 문화 혁신 활동들을 되짚어 봤다. 또한 올해 추진할 기업문화 활동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롯데는 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일하는 문화 혁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업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고 싶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개발해 올해

안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사원들에 대해 입사 이후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그룹차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하고, 유치원 학자금을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그룹 자체적으로 300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롯데는 25개 그룹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환경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 임직원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을 그룹 전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 재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Free'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 기업문화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롯데지주

“ 좋은 영상만 보여주고 싶은 모든 ‘바쁜 엄마’ 마음 담아



도전! 스타트업 크레스

영유아 교육영상 앱 '키리콘' 개발
재능 분석해 도움되는 영상 찾아줘

“세상에 떠다니는 수 많은 영상에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영상을 찾아준다.” ‘전문가 엄마들이 모인 에듀테크 기업’ 크레스와 최상아 대표(사진)가 지향하고 있는 바다.

초등학교 미만의 미취학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는 엄마가 잠시라도 숨을 돌리기 위해 아이에게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주고 유튜브 등의 영상을 보여준다. 아이는 영상을 보며 시간가는 줄 모른다. 엄마도 아이가 보채지 않아 안심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아이에게 무심코 보여준 영상은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크레스는 여기에서 사업을 착안했다. “아이마다 정서나 기질, 다중지능, 성격 등이 모두 다르다. 유튜브 등에 있는 수 많은 영상 중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다. 아이의 성향에 꼭 맞는 영상을 매칭시켜 아이에게 보여주면 그냥 시간을 때우

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상아 대표의 설명이다.

크레스의 영유아 맞춤형 교육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키리콘'은 이런 의도에서 태어났다. 키리콘은 2~7세 아이가 타깃이다.

비용이나 여건 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재미있고, 부모는 부담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콘텐츠 묶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키리콘을 만들게 된 것이다.

최 대표와 크레스 식구들은 1년간 유튜브 등에 떠다니는 3000개 정도의 영상을 분석했다.

최 대표는 “3000개 정도를 분석해보니 교육학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쯤되면 향후 영상을 분석할 때 자동화까지 가능하다”면서 “키리콘 앱에선 아이를 대신해 부모가 발달검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정서나 발달 등에 좋은 동영상을 추천해주고, 부모는 이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스는 EBS와도 손을 잡고 교육 관련 영상도 키리콘을 통해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어떤 영상이 어떤 아이에게 좋은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하자 최 대표는 “비밀(웃음)”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아이가 음악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노래가 나오는 영상을 통해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이라고 부

연했다.

아이디어가 전부인 스타트업인터라 영상 분석 노하우 등이 자칫 알려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김포신도시에선 꽤나 유명한 '김포삼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도시가 커지면서 다양한 소통을 하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삼카페의 몸집도 크게 불어났다.

“김포를 좋은 동네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삼카페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회원수가 어느덧 5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제휴업체도 많아지는 등 업무가 늘고, 일하는 사람도 몇몇 필요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채용했고, 이들에게 임금도 정당하게 제대로 주고 싶었다. 그러다 크레스를 세워 사업을 시작했다.”

최 대표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교육을 공부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삼카페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달에서 온 토끼’를 통해 기부 등 지역 사회에서 여러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교육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애 엄마가 회사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질 않았으면 좋겠다. 크레스가 지역에 있는 많은 엄마들에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젠 경제다” 순방 마친 文, 민생 챙기기 광폭행보 예고

기재부 내일 ‘주요 경제현안’ 보고 21일 ‘혁신금융비전선포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한 가운데, 곧장 ‘경제 현안’을 챙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현안뿐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윤석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다음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3국 순방 직후 곧바로 ‘경제와 민생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는다. 오는 21일에는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선포식의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

활동인구조사 결과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중·장년층 고용지표는 악화됐다.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000명으로,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뿐인가.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실정이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근접했음을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은 17일 전했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p 올랐다. 상승 폭은 BIS 통계 집계 대상인 중국(1.2%p) 다음으로 높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했다.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최근 고개를 들자 야권의 질책도 등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요에만 집중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합작품”이라며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준수하다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꼬집었다.

즉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부정적인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임의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모호한 자영업 안돼... 명확한 소상공인 규정을” 文 대통령 지지율 1.4%p 내린 44.9%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황교안·나경원 등 1000여명 참석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임종·지역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월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확인했다”면서 “사생활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곁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으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됐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해 나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

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중 한 명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北 ‘비핵화 중단’ 언급에 악영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부상은 최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에 냉기류를 유발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중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4.9%, 부정평

가는 2.9%p 오른 49.7%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레선지 청와대는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에 대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비스러운 정도로 화합이 잘 맞는다고 했다. (또)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향후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 중”이라고 진단했다.

/우승준 기자

고용부, 구직 청년에 매월 50만원 준다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으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무를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중기부, 올 메이커문화 사업에 44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이어 메이커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 계획을 19일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해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해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

를 선정,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소년, 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해 동아리당 350만원의 활동비용도 준다.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 개도 발굴 지원한다.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EBS강의 이용률 ‘뚝’, 사교육 ‘쑥’... 정책 실효성 의문

(사교육 경감)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학종 등 수시모집 전형 증가 요인
2022년 EBS 연계율 70%→50%
영향력 축소로 이용자 더 줄 듯

수능시험의 70% 수준으로 연계 출제되는 EBS 강의 이용률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7년~2017년 EBS 수능 강의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EBS 수능 강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1만4493명으로 전년도(2016년) 62만8163명 대비 18.1%(11만3670명) 대폭 감소했다.

EBS 수능 강의 이용자 수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학생 감소폭의 3~4배 수준으로 EBS 이용자 수가 줄었다. 실제로 2017년 고교생 전체 학생 수는 166만9699명으로 전년(2016년) 대비 4.7%(8만2758명) 감소에 그쳤다.

수능과 EBS 강의·교재 연계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2010년(2011학년도 수능 대비)부터 본격 도입됐다. 수능 시험 문항 기준으로 70%



ebs 수능강의 사이트

/캡처

를 EBS 강의나 교재에서 출제해 수능 사교육을 저제한 EBS 강의로 대체하자는 취지다.

EBS 수능 강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본격 도입된 2010년 56만8064명으로 시작해 증감을 거듭해 2015년 72만143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2016년 62만8163명, 2017년 51만4493명으로 본격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BS 수능 강의 회원 수도 2013년 431만5512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해 2017년 130만5816명으로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었다.

이처럼 수능과 연계한 EBS 강좌 이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 위주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

집 전형을 늘리면서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은 약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 선발인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장했다. 대학들은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변별력 하락을 이유로 수능 확대에 적극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인 수능 EBS 연계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교육비는 지난해 19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8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참여율도 2016년 55.8%에서 2017년

‘07년~’17년 EBS수능강의 활용 현황

연도	회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2007년	2,627,681	184,048
2008년	2,843,177	249,598
2009년	3,099,224	306,968
2010년	3,399,929	568,064
2011년	3,878,142	694,336
2012년	4,053,552	658,638
2013년	4,315,512	632,210
2014년	2,196,085	704,322
2015년	1,356,179	721,430
2016년	1,319,256	628,163
2017년	1,305,813	514,493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54.6%, 2018년 51.0%로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2022 대입 개편에 따라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EBS 강의 교재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EBS 활용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앞으로도 고등학교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고 대입 전형 중 수시 비중이 여전히 높고, 영어 절대평가 시행 등 수능 영

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전제하면, 당분간 EBS 수능 강의 이용자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2022 대입부터 정시 수능 중심 선발 비중이 30% 이상으로 권장돼 대입 전형에서 수능 비중이 강화되고 학생부 중심 수시 선발 비율이 감소한다면, 2021년 이후 EBS 이용률을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 연계 EBS 교재는 국어 영역은 ‘수능특강 화법’ 등 4권, 수학가형 4권, 수하나형 3권, 영어 영역 4권, 탐구 영역 각 과목별 2권씩이다. 현재 고2까지 치르는 2021학년도까지 수능은 EBS 교재와 강의에서 70% 수준 연계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고,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강의다. 연계 유형은 영역별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 다. 올해 수능 출제 기조와 난이도 등은 평가원 주관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희대 첨단의료기술 사업화로 난치병 치료나서

엘피스셀테라퓨틱스와 연구 MOU

경희대학교는 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윤경식)과 엘피스셀테라퓨틱스(대표이사 임성빈)가 지난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의과학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엘피스셀테라퓨틱스는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회사로 올해 1월 설립했으며, 경희대 의과대학, 생명공학원, 경희의과학연구원 소속 교수진이 연구개발과 임상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로, 분자생물학, 약리학, 약물유전체학, 임상시험 등 신약 개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임상시험 경험으로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대표 연구자인 손



경희의과학연구원과 (주)엘피스셀테라퓨틱스는 지난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의과학연구원서 연구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대학교

영숙 교수는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최고 연구자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활동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협력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도 약속했다. /한용수 기자

취준생 “신입 마지노선 男 31.8세 女 29.9세”

취업 공백기 평균 17.4개월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즉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마지노선은 남성은 31.8세, 여성은 29.9세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72.1%는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62.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5.1%),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1.7%),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0%) 순이었다.

취준생 중 64.9%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의 취업 공백기를 거친다고 했고, 이들의 취업 공백기간은 평균 17.4개월로 집계됐다. 취업 공백기가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7.2%)가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9.9%),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8%),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6.7%), ▲어학 공부 등 해외 연수 기간(6.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명 중 1명 정도인 11.5%는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흘러 보낸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한용수 기자

‘약학대학 신설’ 1차심사 3개 대학 통과

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3개교
이달 말 최종 대학·배정인원 결정
2020학년도 약대 정원 60명 증원

내년에 약학대학 정원이 60명 늘고, 최대 3개 대학에 약학대학이 신설된다. 신설 약대는 2020학년도부터 ‘2+4년제’ 편입생을 선발하고,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통합 6년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대 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통보받아 2020학년도 약대 신설을 추진한 결과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을 신청했고,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등 9개 대학은 이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1차 심사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친 뒤, 1차 평가와 2

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 대학과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차심사에서는 약학계와이공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가 대학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와 약대 교육·연구여건, 약대 운영 계획 등 대학 평가지표별 정성평가(80%)를 반영해 평가했다.

평가소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평가 상위점수를 얻은 대학을 이번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했다.

정량평가에서는 교원·교사·교사·수익 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충족율과 신입생·재학생충원율·취업률 등 9개 지표가 반영됐고, 정성평가에서는 약대 발전 계획 등과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등 10개 항목이 평가됐다.

이번에 증원되는 약대 정원이 60명임을 감안하면 1차 선정 3개 대학이 모두 최종 선정될 경우, 20명 정도의 초소형 약대

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전국 35개 대학에 2019년 기준 총 입학정원은 1693명이고, 내년엔 60명이 증원되면 1753명이 된다.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각각 120명 정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권에서는 동국대·삼육대·가톨릭대·아주대·한양대 등이 정원 30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한편,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편입학 방식의 약학대학 입시는 공식적으로 2021학년도까지 진행되고, 2022학년도부터는 현행 ‘2+4년제’와 고3 대상 신입생을 뽑는 ‘통합 6년제’ 중 대학 자율로 바뀐다. 다만 약대 인력 수급을 위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 병행이 가능하다. 이번엔 신규 선정 약대의 경우 기존 약대처럼 2020학년도 신입생을 2+4년제(편입학)로 선발하고, 2022학년도부터 고3 신입생 대상 ‘통합 6년제’로 선발할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창립 36주년’ 파고다교육 “맞춤 콘텐츠 집중”

종합 여학교육기관 파고다교육그룹은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강남 파고다아카데미 7층 이벤트홀에서 우수·근속 교직원 시상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루다대표이사(사진)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9년에는 고객 중심으로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콘텐츠의 퀄리티를 고도화시키는데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파고다교육그룹은 올해 고객의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개선시키고 신규 서비스와의 접목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트렌드나 유행을 따



라가는 것을 지양하고, 철저한내부검증과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파고다교육그룹의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그 자체가 신규사업이 되고, 파고다를 이끄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인 ‘콘텐츠팩토리’를 신설, 운영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힘 쏟을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미래엔, ‘살아남기TV’ 론칭 버추얼 유튜버 ‘지오’ 공개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아동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국내 출판업계 최초로 버추얼 유튜버 ‘지오’, ‘피피’를 공개하고 ‘살아남기TV’를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오와 피피는 전세계 2500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학습만화 시리즈 베스트셀러 ‘살아남기’의 주인공이다. 도서 캐릭터가 버추얼 유튜버로 나서는 것은 국내 출판업계 최초다. ‘브이튜버(V-tuber)’로도 불리는 버추얼 유튜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가상 캐릭터에 모션과 목소리를 더한 사이버 캐릭터를 말한다. /한용수 기자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기보 예비창업자 위한 '벤처창업교실' 마련

4월 12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우수 수료자에 무료 컨설팅 혜택도

기술보증기금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이끌기 위해 '2019년 제1회 벤처창업교실'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처창업교실 참가는 이달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좌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은 제조, 정보통신(ICT), 신

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분야, 지식 문화산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일간 총 28시간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4차산업혁명의 미래와 기술창업 BM수립 ▲창업법률 ▲지식재산권 ▲세무·회계, 인사·노무 ▲온라인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지식 위주의 강좌들로 구성됐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무료로 '맞춤형 창업컨설팅' 혜택도 지원된다.

/김승호 기자 bada@



SK건설, 소외계층 지원 자선레이스 실시

SK건설은 지난 17일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눔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임직원 16명이 참가했고, SK건설 임직원 400여명이 후원해 총 7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 전액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SK건설

한화갤러리아 채용전제형 하계 인턴사원 채용

25일부터 4월9일까지 서류접수

한화갤러리아가 2019년 하계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그룹 채용사이트인 '한화인'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서류접수를 진행하며, 서류접수 마감일은 4월 9일이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이내 졸업 예정자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인턴사원 채용과정을 통해서만 신입사원 입사가 가능하다.

한화갤러리아는 두 자릿수 인턴사원을

선발한 후, 인턴십 및 최종면접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직무는 전문성을 중시함에 따라 ▲영업·상품 ▲직매입MD ▲기획·마케팅 ▲F&B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한다.

한화갤러리아는 자기소개서 심사에도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자 전원의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대리급부터 차·과장급, 인력개발팀까지 수십 명의 주요 부서의 실무진이 참여한다.

/신원성기자 tree6834@



코웨이, 복지관서 신입사원 봉사활동 진행

코웨이는 2019년 신입사원들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과 함께 신입사원 20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 학습자료 확충 및 업무 보조 등에 나섰다.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입력·검수하고 시각장애 근로자의 헤드폰 포장조립 작업을 보조하며 자립을 도왔다. 이혜선 대표(앞줄 왼쪽 5번째)와 신입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한국야쿠르트,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와 연구협력 MOU

한국야쿠르트가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와 함께 프로

바이오틱스 기능성 연구 개발에 앞장선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6일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와 '프로바이오틱스 및 천연물 기능성 연구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 연구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프로바이오틱스와 천연물의 기능성 발굴 이외에도 산·학·병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야쿠르트

시니어 창업 전문대학원에 바란다



이상현의 칼럼

시니어 세대(1955~1963년생)를 소위 낀 세대라 칭한다. 부모님을 책임지고 자녀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하지만 712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세대들은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명퇴나 조퇴 등 평생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경험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은 이 시대 최고의 산업 원동력이었다. 그러한 성장 원동력이었던 그들은 소위 생물학적 나이로 인하여 방치하거나 단순직업에 종사하는 작금의 우리나라 고용현실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정신적 열정의 나이는 전혀 문제없이 새로운 도전과 추

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창업의 교육과 실전을 주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창업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적당한 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환경으로 미뤄볼 때 시니어 세대들의 성공창업지수는 그 어느 세대보다 우선한다고도 볼 수 있는게 현실이다.

다소 늦은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시니어들의 창업 전문성과 현실을 고려한 시니어창업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창업의 이론적 배경과 적합한 아이템의 선정 그리고 창업전문가와와의 협업과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사례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창업은 이론만 가지고 실행 할 수 없는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현실기반에 맞춘 아이템별 차별적

경쟁력과 실행프로그램을 구현해야한다.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립도와 함께 노동적 신체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창업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소비기호와 판매형태 노동채산성 그리고 투자에 따른 적정 수익기반등을 점검하고 준비해야한다.

'시니어창업경제학'에서는 연령별 창업아이템의 차별적 접근과 운영은 철저한 창업환경에 맞춘 현실계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확한 말이다. 연령별 창업전략을 존재한다. 시니어에 적합한 아이템선정과 운영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교육과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에그기반이 시니어창업전문대학원에서 시범적으로 실행된다니 기대해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정보보호 캠페인 앞장

계열사 CEO들과 홍보물 배부 고객정보 안전관리 경각심 강화

NH농협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김광수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범농협 임직원들에게 고객정보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김 회장과 계열사 CEO들은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 및 관리할 때 임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 회장은 "최근의 디지털 생태계 변화 속에서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농협금융이 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서 정보



(왼쪽부터)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NH농협은행 이대훈 행장이 18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정보보호 캠페인에서 출근 중인 직원들에게 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보호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최신 보안위협 탐지 및 정보 분석 강화를 위해 지능형 탐지체계를 수립하는 등 정보보호 내실화에 힘

쓸 예정이다. 또 임직원의 자율 보안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정보보호 교육과 상·하반기 범농협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GS리테일, 임시정부 발자취 탐방 캠페인

'나라 사랑하는 방법' 콘텐츠 응모 100명에 상해임시정부 등 탐방 기회

GS리테일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고객과 함께 2박3일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 캠페인을 실

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테마로 한 콘텐츠를 자유 형식으로 제작한 후 GS25, GS슈퍼마켓, GS프레시의 전 SNS 채널에 게재하고 해시태그(#우리가나라를사랑하는방법, #GS리테일)

를 남기면 된다. 총 50개 작품이 임직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한 2인이 상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5월 24~26일까지 총 2박 3일간 진행되는 탐방은 상해임시정부, 홍구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였던 항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 성장동력기획과장 권기석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승진 △ 부사장 이도열
- ◆씨네21 △ 전략기획실 본부장 박건태
- ◆강원도개발공사 ◇ 단장급 보직 임명 △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 차장급 전보·승진·보직 임명 △ 공공사업팀 강원도농업기술원 건설사업소장 기백석 △ 주택사업팀장 김경운 △ 사업개발팀장 박영규 △ 올림픽시설팀 과장 박유성 △ 공공사업팀장·상·참석복합체육공원 건설사업소장 겸임 신상철 △ 재무관리팀 과장 안영순 △ 올림픽시설팀장 이웅배 △ 알펜시아 에너지환경팀장 이철재 ◇ 과장급 전보·승진 △ 기획혁신팀 혁신파트 김용태 △

- 미래전략팀 감사 파트장 김준희 △ 인사총무팀 대외협력파트 박현수 △ 올림픽시설팀 강릉올림픽경기장 운영사업소 서창석 △ 사업개발팀 송호석 △ 올림픽시설팀 강릉올림픽 경기장운영사업소 원인식 △ 주택사업팀 이규남 △ 주택사업팀 흥천행복주택 건설사업소장 이종혁 △ 사업지원팀 옥계보상사업소장 전영호 △ 주택사업팀 흥천행복주택 건설사업소장 정동환 △ 인사총무팀 조소영 △ 재무관리팀 계약파트 추병렬 △ 사업개발팀 함옥 ◇ 대리급 전보·승진 △ 사업개발팀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건설사업소 이근수 △ 재무관리팀 임병욱 △ 사업개발팀 최백규 ◇ 주임급 전보 △ 공공사업팀 김수진 △ 공공사업팀 김용기 △ 공공사업팀 박경준 △ 미래전략팀 박준철 △ 미래전략팀 감사파트 변혜연 △ 재무관리팀 안정은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인사 △ 고용노동부 파견 박정웅 △ 대리직거래과장 한용호

부음

- ▲ 모기남씨 별세, 김희문(한국증권금융 신탁부문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3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125 오산장례문화원 201호 특실, 발인 19일 6시 30분. ☎ 031-375-1100
- ▲ 전영훈씨 별세, 김동철(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 18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 발인 20일 오전. ☎ 031-787-1500
- ▲ 차점춘씨 별세, 김재기(전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씨 모친상 = 17일,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10시. ☎ 055-712-0900, 010-3868-3564
- ▲ 최기생씨 별세, 최봉수(피버트에프앤씨 사장)·은수(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희·성화·은진씨 부친상, 우희승(팔고당 이사)씨 장인상 = 17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 031-787-1500

“여행 ‘먹킷리스트’ 집 앞에서 편하게 즐기세요”

편의점, 해외 직소싱 ‘초대박 인기’... 상품 확대 박차

대왕젤리·포피뽀 등 폭발적 수요 SNS로 입소문 퍼져 마케팅 효과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역할

편의점 업계가 일명 ‘먹킷리스트(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로 불리는 해외 유명 먹거리를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 유인 효과를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해외 직소싱 상품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가 50번째 해외소싱 상품으로 선보인 ‘대만 대왕젤리’는 완판을 기록하며 대박 상품 반열에 올랐다. 애플망고, 리치 등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된 대만 대왕젤리는 국내 젤리 상품보다 약 2배정도 큰 크기 덕분에 ‘대왕젤리’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대만 필수 쇼핑 아이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대만 대왕젤리 중에서도 현지에서 인지도 높은 오리지널 상품을 국내에 선보였다. 1차 물량으로 들여온 18톤은 약 10일만에 모두 소진돼 현재 재입고 중이다.

비단 대만 대왕젤리뿐만 아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 떠오른 이른바 ‘대박 상품’



고객이 포피뽀가 쌀국수를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CU의 해외소싱 상품.

/BGF리테일

중 해외 직소싱 상품이 눈에 띄게 늘었다.

편의점 GS25의 베트남 쌀국수 ‘포피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GS25가 시범적으로 들여온 이 제품은 출시 10일 만에 초도 물량 20만개의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이후 GS25의 PB상품으로 정식 출시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또한, CU가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모찌롤은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한 데 이어, 현재 70차 재입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음료 모구모구는

170차 재입고를 진행할 만큼 좋은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들이 해외 직소싱 상품에 눈을 돌린 이유는 업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해외 ‘먹킷리스트’가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현지 인기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 ‘먹킷리스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 입소문을 내면서 마케팅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편의점들이 관련 팀을 꾸리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CU는 지난 2017년에 해외소싱 전담팀을 개설한 뒤, 현재까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50종의 상품을 직소싱해 왔다. 전문점이나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 해외 직구를 통해 한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던 상품을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여온 것이다.

CU는 비싼 배송료나 긴 배송시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해외 직소싱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GS25는 해외 직소싱 상품 MD와 SNS 분석 담당자의 협업을 통해 해외 상품을 발굴·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이무라야 인절미모찌캡·인절미모찌모나가 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현지 인기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업계의 해외 직소싱 열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차별화 전략은 물론, 가맹점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GS25는 올해까지 50개 이상의 해외 현지 유명 상품을 직소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U 역시 차별화된 상품으로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BGF리테일 이태훈 해외소싱팀장은 “상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제품을 직접 맛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정용진 화장품 ‘스톤브릭’ 통했다

한 달만에 20대 여성·日 관광객 사로잡아

매출 계획보다 2.7배 높은 기록 보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기획 초기부터 각별한 애정을 보인 색조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이 개점 한 달 만에 시장에 안착하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톤브릭은 현재 계획 대비 2.7배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쾌조를 보이고 있다.

스톤브릭의 성공 요인은 19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색상과 장난감 ‘레고’를 연상시키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층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구매 고객 비율은 20대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스톤브릭의 ‘안테나숍’인 흥대점은 인근 상권에 화장품 로드숍 7~8개가 모여있는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객단가가 3만 5000원에 이르며, 일일 방문객이 평일 400여명/주말 1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1/4 가량이 외국인이며, 이 중 70% 가량이 일본인 방문객(전체의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화장품 브랜드와 달리 중국인 방문객(전체의



스톤브릭 흥대점 전경.

/이마트

5%)에 비해 일본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측은 스톤브릭 상품이 크기가 작고 귀여우며 통통 튀는 색감 때문에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스톤브릭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stonebrick 검색 시 나오는 관련 게시물이 800개를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일본어로 쓰여진 게시물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스톤브릭은 이 여세를 몰아 판로를 왕

성하게 넓히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인천공항면세점 화장품 편집숍에 입점 완료했으며, 조만간 2~3곳의 타 체널 매장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김계숙 스톤브릭 팀장은 “컬러·스마트·편 등 세 요소로 차별화를 이룬 스톤브릭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뤘다”며 “신규 NB 색조브랜드로서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판로를 지속 확대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 PB 안경 ‘뷰’ 출시... 품질로 승부

100% 국내 생산·합리적 가격 선택 트렌드 발맞춰 디자이너 브랜드 협업

롯데백화점이 올해 PB(자체 브랜드) 상품 영토확장에 나선다. 100% 국내 생산한 안경을 PB 상품으로 내놓는 것.

롯데백화점은 과거 시력 교정 목적이었던 안경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PB안경을 출시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안경은 선글라스 PB인 ‘뷰’에서 판매한다. ‘뷰’는 론칭 첫 해인 2018년 목표 100%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에는 그 영역을 안경으로까지 확대해 토털 아이웨어 브랜드로 운영될 예정이다.

‘뷰’의 안경 스타일 수는 총 15가지로 동양인의 얼굴 형태에 잘 맞는 형태로 개발됐다. 뷰의 안경 및 선글라스 전 제품은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다른 하우스(국내)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두고 100% 국내 대구 지역에서 생산한다. 기성 브랜드의 80~90% 수준인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다. 또한 젊은 감성을 더하기 위해 P



PB 뷰.

/롯데쇼핑

B최초로 협업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 중이다.

2018년 본점, 잠실, 수원점의 3개 매장을 오픈한 ‘뷰’는 올해 14개 매장을 추가 오픈해 총 17개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광복점, 울산점, 전주점, 광주점, 인천터미널점 그리고 면세점에 입점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을 계획 중에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주류, 대용량 순하리 美 현지 판매

해외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750ml



롯데주류가 ‘순하리’의 미국 수출 전용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고 3월말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대용량 ‘순하리’는 750ml 제품으로 기존 수출하던 제품(360ml)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소주병’으로 통용되는 360ml 병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와 달리 750ml 병에 보다 친숙한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위해 용량을 늘렸다.

알코올 도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순하리와 동일한 12도로 순하리 시리즈 중 해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복숭아 맛’을 가장 먼저 대용량으로 출시한다. 패키지 디자인도 사각형 모양의 병에 검정색 라벨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롯데주류는 순하리를 즐기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늘어 나고 있고 현지 주류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아 현지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이번 대용량 순하리를 출시, 수출하게 됐다.

대용량 ‘순하리’는 뉴욕, LA, 시애틀 등 주요 도시의 주류 매장, 바,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하리’는 미국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년비 4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된 대용량 제품은 북미 지역 소비자들의 문화와 소비 패턴을 고려한 제품인 만큼 현지 시장에서 ‘순하리’의 인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프레시웨이, 中 해천미업과 독점공급 계약

CJ프레시웨이가 중국 해천미업의 소스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해천미업과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력 제품인 간장과 굴소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해천미업이 공식 유통업체를 선정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천미업은 300년 전통의 중국 대표 소스기업으로 중국 34개 성급(省級) 행정구역과 300개 이상의 시(市) 단위의 전국 유통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축구장 280개 크기인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체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천미업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중국 현지 간장, 굴소스 시장에서 각각 19%, 72%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2017년 기준, 중국조미협회 자료)을 차지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3월 말부터 해천미업의 대표 제품인 ‘해천 시그니처 굴소스’의 병 제품(725g)과 페트 제품(2.52kg)에 대한 독점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박인용 기자

동아ST '슈가논' 인도서 첫 발매 환자수 7300만명, 해외진출 초석

발레라, 4월 1일부터 판매 예정
세계서 두번째로 당뇨병환자 많아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신약 슈가논이 해외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에 발매 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7일 인도 뭄바이에서, 현지 파트너사 알켄과 당뇨병치료제 슈가논의 인도 발매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에서 슈가논의 제품명은 라틴어로 강함(Strong)을 뜻하는 '발레라(Valera)'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발매식에서는 양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매 기념영상 시청과 제품 강의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12년 말 동아에스티는 알켄과 인도, 네 팔에서의 슈가논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알켄은 지난해 9월 임상3상을 완료하고, 12월 인도의약품관리청(DCGI)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상업화에 성공함에 따라, 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임대식 회장이 17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슈가논(현지 제품명: 발레라) 발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는 알켄에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고 알켄은 인도 현지에서 완제 생산 및 판매, 마케팅을 담당한다.

알켄은 1973년 설립, 본사는 뭄바이에 위치한 인도의 선도적인 제약기업이다.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매출 순위는 6위다. 75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5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인도의 당뇨병환자수는 약 73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

며, 지난해 전체 당뇨시장은 15% 성장했다. 이 중 DPP-4계열 단일제는 9% 성장한 약 1830억 원, 복합제는 22% 성장한 약 3120억 원을 기록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인도 발매는 해외에서 슈가논이 발매되는 첫 번째 국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슈가논의 순차적 발매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동아에스티의 주력제품인 슈가논이 국내에서 매출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시장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K-팝·뷰티·어피치, 日 관광객 공략 관광공 "올해 320만명 방한이 목표"

도쿄·오사카 온·오프라인 마케팅
여행사와 재방문자 특화상품 개발

한국관광공사는 전년 대비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방한 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도쿄와 오사카 지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유치 마케팅을 집중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테마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정하 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며 광주, 부산을 비롯한 6개 지자체와 공연, 웰니스 등 20여 개 기관이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여행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상담회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31일 제주항공 나리타-무안 노선 취항과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기회를 활용해 광주·전라남도 3개 시도와 대회조직위가 공동으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전라관광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라권 방한여행 신규 수요 창출을 꾀한다.

공사 한반도관광센터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관광'을 주제로 경기, 강원권의 평화열차, 도보여행 등 테마별 DMZ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상품화 전략을 소개해 일본시장 내 DMZ 상품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사카지사에서 일본인 방문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재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숨겨진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온라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전개한다. 일본의 대표 여행사 HIS와 공동으로 4월부터 8월까지 20-30대 젊은층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이런 한국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의 재방문객에게 추천하는 골목길 투어, 유니크 체험,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어피치 한국관광홍보대사 임명식

소개하고 이를 직접 방문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구글, 야후재팬, 페이스북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QR코드 스캔으로 웹광고 및 추천 관광콘텐츠들을 한눈에 보면서 동시에 상품 예약이 가능한 AR팝플렛(증강현실)을 개발하고 HIS 각 점포에 비치하여 재방문자를 대상으로 방한관광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공사는 온라인 여행사 '에어토리'와 함께 한국 지방 재방문을 유도하는 '직항노선으로 가는 한국 지방의 새로운 매력'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오는 28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일본 노선 취항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청주, 대구, 무안 공항을 거점으로 한 연계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개별 여행객(FIT) 전문 여행사와 함께 재방문자 대상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판촉을 강화해나간다.

하상석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은 "K-팝, 패션, 미용 중심 일본 내 신(新)한류 붐으로 일본인 방한관광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는 최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어피치'를 한국관광홍보대사에 임명하는데 이어, 국내 지방 관광 활성화와 일본인 재방문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해 올해 일본관광객 32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필립스 소닉케어,
세계 구강보건의 날 맞아 양치법 교육

필립스코리아의 구강헬스케어 브랜드 '소닉케어'가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3월 20일 '세계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잇몸건강 지키는 '안전한 양치법'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소닉케어는 시민들에게 힘으로만 닦는 자극적인 양치습관을 잇몸출혈, 잇몸손상으로 이어져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전신건강까지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진영 기자 son@

전승호 대응제약 사장, 예비약사와 소통

약대생 실습생 30명과 간담회 개최

전승호 대응제약 사장이 예비약사들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18일 대응제약에 따르면 전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대응제약 본사 소통라운지에서 올해 1월부터 실습을 진행중인 '팜 DW(Pharm DW)' 약대생 실습생 약 30명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팜 DW'는 약학전공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약산업 실습을 의약품 연구와 생산, 마케팅, 품질관리와 유통 등 8주 또는 15주 등 일정기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실습생제도다.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약 80명의 실습생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2회 심화실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잠재력과 업무역량을 평가해 실습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실습생은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기존 실습생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에 그치는 점을 개선해, 실질적인 업무 체험을 제공하는 성장 맞춤형 실습으로 관련 실무 경험을 통한 참가자의 역량 강화에



전승호 대응제약 사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대응제약 본사 소통라운지에서 올해 1월부터 실습을 진행중인 '팜 DW(Pharm DW)' 약대생 실습생 약 30명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집중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습생들은 전 사장에게 회사의 경영방향, 제약회사에서의 커리어패스, 대표님이 생각하는 리더십, 대응제약 입사 후 사장에 이르기까지의 폴스토리, 다시 약대 6학년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 등을 질문했고, 전 사장의 답변과 조언을 경청했다.

전 사장은 "실습생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어린이용 가그린' 돼지 캐릭터 패키지 리뉴얼

동아제약이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동아제약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어린이용 가그린의 패키지를 돼지 캐릭터 데이지가 주인공인 '굴리굴리 프렌즈'로 리뉴얼 출시(사진)했다.

굴리굴리 프렌즈는 그림책 작가이자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현 작가의 캐릭터다. 새롭게 바뀐 어린이용 가그린에는 숲에 살고 있는 마음씨 고운 착한 돼지 데이지와 호기심 많은 친구들의 일상이 담겨 있다.

동아제약은 어린이용 가그린의 패키지 디자인뿐 아니라 용기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유색 용기에서 재활용이 비교적 쉬운 무색 투명 용기로 변경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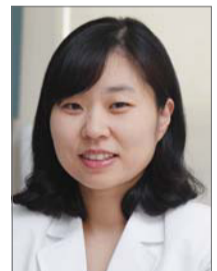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교수

챗봇 회사 '하이'에 치매예방 콘텐츠 기술 이전

김건하(사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챗봇 개발 회사인 하이와 치매 예방 훈련용 콘텐츠의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강화 훈련 챗봇 콘텐츠'로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로 진행된 중인 초고령자들의 뇌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의 일종이다.

하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HCI Lab 김진우 교수가 창업한 회사로 최근에 김건하 교수의 치매 예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새미'라는 챗봇을 개발 중에 있다.



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인지훈련 콘텐츠,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능, 동반자적 느낌을 가지게 하는 대화 디자인 등이 반영돼 있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숯 성분 담은 '2080' 출시

애경산업의 내추럴 치약라인 2080 퓨어는 유립산 100% 자연유래 숯 성분을 담은 '2080 퓨어블랙치약 차콜민트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치약은 입자가 곱고 미세한 코코넛

검질숯이 함유된 내추럴 콘셉트의 치약으로 하얗고 깨끗한 치아유지와 구취 제거에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LG U+, 전국 5개 도시 '찾아가는 영화 시사회' 진행

단골·이벤트 당첨 고객 등 2000명 대상

LG유플러스는 18~19일 2일간 전국 5대 도시에서 영화 시사회 이벤트인 'U+ 찾아가는 영화관'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U+ 찾아가는 영화관 이벤트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총 2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영화 시사회 이벤트다.

18일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에서 LG U+ 매장의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U+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모션은 강남·서초·송파 지역 LG U+ 매장의 직원들이 VIP 단골 고객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9일 오후 8시에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부산 부산본점·대전 둔산·대구 성서·광주 수완에서 열리는 U+ 찾아가는 영화관 이벤트



직원들이 'U+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 시사회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12일 까지 진행했던 이벤트 응모에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사회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배우 류준열

과 유지태가 주연한 '돈'이다. 19일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에서 오후 8시에 열리는 행사에는 영화 돈의 주연배우 무대인사도 포함됐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박영선 후보가 가져야 할 덕목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으로 또다시 정치인 출신이 장관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차기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여러 명이 거론될 당시에도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 등이 어떨까 싶었다.

말 나온 김에 이유를 좀더 설명 하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의 첫 수장에 정치인을 앉혀놓고 보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취재를 하면서 수 없이 만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 사람들이 두루 내놓은 평가가 그러하다.

하지만 첫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옮기기에 바빴다. 정책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의 발언을 구별하기 힘들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편의점 주인, 실패했다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 대학생 창업가, 중소·벤처기업인 등 소위 '삼라만상'을 관

장하고 있는 부처다. 그 중 일부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다. 일부 요구는 너무 심하다 싶은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기 보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가 되면서 '빈집에 소가 들어온' 중기부만해도 그렇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때 타부처나 개방직을 통해 수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중기부는 출범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업무능력제고'였다.

“정치인은 짐작다리일 수밖에 없다. (자리를)정치적 목적이나 욕망의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중소·벤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전문가가 신랄하게 내놓은 말이다.

/bada@

기아차, 2018년 판매 우수자 163명 시상

정승주 망우지점 부장 14년 연속 판매왕

기아자동차의 판매왕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아차는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19 기아 스타 어워즈'를 열고 지난해 판매 우수직원 163명에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나해 767대를 판매한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이 '판매왕'으로 뽑혀 14년 연속 판매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해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한

정승주 부장은 2006년부터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키며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해 '그레이트 마스터' 호칭을 받았다. 연 평균 300여대 이상 판매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상품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늘 고객 한 분 한 분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비결"이라며 "2019년에도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신차 등을 통해 기아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



'2019 기아 스타 어워즈'에서 판매왕에 오른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60년생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행동. 72년생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주어지지 보람을 느낀다. 84년생 나도 받을 때가 있는 법 베풀 능력이 있을 때 베풀어라.

49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61년생 망신 수가 있으니 매사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3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85년생 수고로움은 많으나 실속은 적으니 삼재의 기운이다.

50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마라. 62년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기쁜 하루. 74년생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하도록. 86년생 큰일을 맡게 되니 위촉되지 말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51년생 복을 날이니 일이 늦어져도 경거망동하지 마라. 63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야 한다. 75년생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87년생 평소 애 썼던 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52년생 지나친 일 욕심은 건강을 해치게 되니 주의해야. 64년생 억울해도 뒷 사람에게 따지거나 언쟁하지 마라. 76년생 호사다마이니 잘 나갈 때 더 조심. 88년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니 겸손한 태도가 빛을 발한다.

53년생 내가 좋다고 남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5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일 것을 미리 대비. 77년생 서로에게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법. 89년생 힘들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부족한 자신을 알게 된다.

54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조심. 66년생 걸음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니 고정관념을 버려라. 78년생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운 하루. 90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면 물에 들어가야 한다.

55년생 터널 속처럼 답답하니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관건. 67년생 특출한 아이디어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79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 91년생 대가만성(大器晩成)은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할 것.

56년생 믿는 도끼에 찍히지 않으려면 세밀히 살피라. 68년생 권태로운 생활을 벗어나려 해도 쉽지 않다. 80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격이니 난감. 92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니 좋은 소식이 온다.

57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 6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대로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81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해야. 9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나쁘지 마라.

5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70년생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82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94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5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노를 힘껏 저을 때. 71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휴식이 필요. 83년생 겨울인가 했는데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가까이 있다. 95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큰 자산.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Sudoku grid 1

Sudoku grid 2

스도쿠 정답

Sudoku solution grid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四季

삼종가피(三種加被)

보이지 않는 힘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가피라 한다. 불자들의 경우 가피를 입는다, 가피를 받는다는 말을 쓴다. 기독교나 천주교신자들이라면 "은혜를 입는다." "기도응답을 들었다." 라는 분들도 본 적이 있다.

불가에서는 삼종가피(三種加被)라 하여 현증가피, 명훈가피, 몽중가피를 얘기한다.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선 당장 빠르면 3일 이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증가피(顯證加被)라 한다면, 은근하게 보호를 받으며 일상생활 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명훈가피의 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00206 2002년5월28일 제41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50111 2017년3월09일 제0265호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공기업 중 가장 빛났다

공기업 유일 중소기업협약 10년 유지
270여 건 국산화 개발 적극 지원
위라벨 실현 등 노사상생에 방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동서발전의 다양한 상생 경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 최초로 10년간 중소기업협약체를 유지하며 협력기관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협의회 10주년

동서발전이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협의체가 지난 15일 10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말 현재 85개사가 참여하고 협의체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들 매출이 10년간 매년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향상됐다. 특히, 해외수출은 약 800억원에서 현재는 4000억원으로 약 5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 선출직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구성되고 동서발전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8년 열린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성과발표회 모습.

기업의 애로해소에 함께 노력해 왔다.

초창기의 애로사항은 발전설비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외산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있었다. 동서발전은 발전소 실무담당자들과 중소기업 간 1:1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발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화개발 확대를 위해 외산 기자재 구매품 목록을 제공했다. 또 퇴직직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제도도 발굴해 시행해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국내외 100회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270여 건의 적극적인 국산화 개발을 지원했다”

며 “개발된 시제품들을 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직접 적용하여 실증시험하는 등의 노력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에너지플러스시티 추진

동서발전은 지난해 9월 울산광역시와 에너지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모델인 ‘에너지플러스시티(e+ City)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중심의 산업육성(e-Clean City)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창업(Start City)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Inno. City)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공유가치 창출(CSV) 등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울산지역에 총 8조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울산시가 ‘에너지신사업의 경제수도’로 재도약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서발전은 동서발전형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로 정의하고,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변화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정의했다.

에너지 회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청년 교육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교통약자와 소외계층 복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노사합의 통한 장시간 근로개선

지난 14일 동서발전 노사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위라벨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동서발전은 그동안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

영했으며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 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해 이번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앞당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한국동서발전 사옥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11~15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을 대상으로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 노하우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탄자니아에 ‘공항 운영 노하우’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11~15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인 ‘수하물 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BHS) 운영 노하우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 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생들은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노하우 학습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OJT(On-the-Job Training) 교육 등을 학습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탄자니아 공항청(Tanzania Airport Authority, TAA)은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 등 탄자니아 내 58개의 공항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공항 확장 및 신규 터미널 오픈 계획에 따라 공항 운영 효율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하물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운영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오창産團에 中企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시와 공동으로 오창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정원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기업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지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포함해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

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5억5000만원과 매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원의 재정지원을, 청주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한편,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개원한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생산성본부, 대전서 4차산업혁명 대응 나선다

대전테크노파크와 혁신산업 MOU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전테크노파크와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대전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사업 발굴, 연구·조사를 비롯해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격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경영체제(PMS)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AI, 빅데이터 등 지역 혁신산업



한국생산성본부와 대전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성본부

육성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대전 지역은 특히 연구소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대전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농진청 “자체 개발 ‘우리 술 12종’ 만나세요”

아황주·녹파주·탄산막걸리 등

다채로운 우리 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한다.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진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빛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



녹파주

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와 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술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열리며 평일에는 저녁 7시에도 추가로 진행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 판로개척 지원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작년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을 통해 총 1200개사를 지원해 5000만 불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중국 알리바바그룹 티몰(Tmall), 베트남 국영 VTV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100년 전 신념이 100년 후 대한민국에게

100년 전, 민족의 현실을 바꾸고자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정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KB 금융그룹

완도군 역도실업팀, 전용 훈련장 생겼다

착공 4년 여 만에 훈련장 건립
차세대 역도 유망주 미래 밝혀

완도군의 유일한 실업팀인 완도군청 역도 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되어 차세대 역도 유망주 발굴은 물론 국내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1월 착단된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의 전용 훈련장은 완도 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훈련장, 체력 단련장), 지상 2층(사무실) 규모로 총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지난 3월 13일 준공 4년 여 만에 전용 훈련장을 갖게 됐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감독 허진)은 선수 4명(완도출신 1명)에 감독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8 한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금3, 은4, 동2),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금4) 등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완도군을 알리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도실업팀 허진 감독은 18일 “ 그동안 전용 훈련장이 없어서 완도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해 왔는데 전용 훈련장이 생겨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하여 완도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훈련장 개장에 적극 지원해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좋은 훈련장이 생긴 만큼 올해 각종대회에서 선수들이 한층 더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



인천시, 유원지 등 300개소 위생점검

봄나들이 철 맞아 식품안전 확보 만전
보관기준 준수 등 식중독 예방 힘써

인천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시민의 이용이 증가하는 유원지,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 놀이공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과 햄버거 및 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시 및 군·구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며, 햄버거와 도시락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행위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중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인천시청.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기온상승과 더불어 식재료 보관·조리·판매 등 취급시 조금만 소홀하다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심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노사상생도시 시-자치구 공동협약식2)

광주시-5개 자치구 뭉쳤다

‘노사상생 도시 광주’ 공동협약

“현대차공장 협약 계기로 첫 걸음”
협약 실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의기투합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시와 5개 구청은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기업에게는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사상생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며 “현대차와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5개 구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공동 추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협력 ▲노사갈등 발생시 평화적 해결 노력 ▲노동자 자존감 회복 및 기업육성 시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은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시와 5개 구청이 앞장서겠다는 결의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산하기관 및 기업·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oo.co.kr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서 설명회
2년간 2억 지원... 20개사 선정

전라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참여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 기준 3년(2016~2018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기업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1% 이상(3년 평균) ▲고용증가율 5% 이상(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 5% 이상(3년 평균), 4개 기준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전남도청 전경.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 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등 5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별로 연간 1억 원, 2년간 최대 2억 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체계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라남도는 신청 기업에 대해 시군에서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도에 추천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남형 강소기업 사업 계획 설명회를 열어 지원 프로그램 수행 방법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 추가모집

김제시, 체감가능한 일자리 확충 힘써
9개 기관에서 일할 참여자 9명 모집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Aria)’ 추가 모집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간취업연계형 ‘아리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하여 9개 기관에서 일할 참여자 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된 인원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하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화)부터 25일(일)까지 7일간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담당(540-3338, 3995)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아(Aria)’라는 사업명은 선율이 아름다운 곡조와 공기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이탈리아어에서 착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노래 선율과 같은 청년일자리 창출 의지를 담고 있다. /전북 김제=봉태영 기자

정읍시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읍시가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군·농어촌도로 17개 노선 9.2km를 확·포장한다.

시는 군도 6개 노선 2.1km,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7.1km를 확·포장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관청~주산선(군도 4호) ▲승부~반곡선(군도 8호) ▲마태~입점선(군도11호) ▲상산~선동선(군도12호) ▲진흥~오주선(군도 13호) ▲육리~상서선(군도20호)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상두선(신태인309호) ▲신포선(신태인311호) ▲분덕선(태인305호) 등을 실시한다.

/전북 정읍=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19일 (화)
음력 : 2월 13일

수도권 날씨
17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8, 동두천 0/18, 가평 -2/18, 파주 -2/16, 서울 5/17, 양평 1/19, 인천 6/14, 수원 5/16, 용인 5/16, 평택 0/19, 백령도 5/12

해돋이 / 06:38 | 해질 / 18:4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창문없는 고시원 사라진다... 스프링클러도 의무화

서울시,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서울형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국일고시원’ 참사 되풀이 차단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고시원이 1061곳이나 된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그동안 200여개 이상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고시원이 많다”며

다. 시는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설치비 지원 조건인 ‘입실료 동결’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재준 서울시 건축안전제도팀장은 “국일고시원 사고 이후 구청을 통해 280여곳의 고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약 1000곳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고시원의 실태는 4~9㎡(1~3평)이었다. 막방(창문 없는 방)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

는 고시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해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 샤워실,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랑진 고시촌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 중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희건물을 세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

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기존 3개층 330㎡ 이하에서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공지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회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방안 검토



총 12.59km 대상 구체적 방안 논의
광진·성동·송파, 협의체 구성키로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15일 박 시장과 지하철 2호선 지하화의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상구간인 한양대역~잠실역 분선 9.02km와 지선 구간인 성수역~신담역 3.57km 등 총 12.59km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 해당 지역의 우울한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핵심 정책 연구과제로 착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와 성동구, 송파구는 서울시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은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지역 주민의 지하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광진구는 지난 1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잠실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김현정 기자



한 달간 배출가스 집중단속

18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폭언·의료사고 방지일환 설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운영해 호응이 큰 수술실 CCTV. /경기도

한국투자증권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도 추가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사회가 강력한 반발 등 극심한 반대

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의사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 자동차도로 11곳 ‘봄맞이 대청소’ 실시

서울시는 내달 26일까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봄철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하루 평균 70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

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지운 서울시시설공단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우수정책에 교부금 600억 지원

정책공모2019 개편안 마련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추진계획’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시상 시군을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최종 순위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

억 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책공모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대규모 3건, 일반규모 7건 등 본선 진출 총 10개 팀에 최대 100억 원, 최소 45억 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식을, 대규모 4건, 일반규모 10건 등 14개 팀에 최고 100억 원, 최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군 수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SH, 아파트관리 노하우 알려준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아파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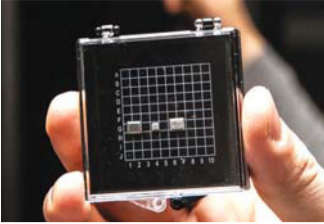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의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은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김현정 기자



[산업]
5G 시대 해킹·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
SKT, '양자암호' 방어
05



Life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가장 빛났다
L4



고등학생, 제빵 교육부터 채용까지... 외국인 주부엔 한식조리법...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다가간다



120 신세계푸드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1995년 신세계푸드가 신세계 그룹의 급식사업부에서 분사해 현재 식품유통, 제조, 급식, 베이커리, 외식을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결같이 유지해 온 사회공헌활동의 철학이다. 2023년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신세계푸드는 일회성 물품 전달이나 후원이 아닌 업(業)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가며 든든한 고객 평판을 쌓고 있다.

◆키다리아저씨·베이킹 클래스

신세계푸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키다리 아저씨'와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가 있다.

'키다리 아저씨'는 조리사 또는 제빵사가 꿈인 취약계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연 단위 프로젝트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한 희망배달기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원비, 응시료, 조리용품 등 조리, 베이킹 관련 자격증 취득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종합식품연구소 올반LAB의 셰프들이 직접 멘토로 참가해 매월 조리실습, 모의시험, 맛집 탐방, 공장견학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전문성을 넓혀준다.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협약을 맺고 후원을 한 키다리아저씨 1기 고교생 20명 가운데 8명이 첫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신세계푸드는 키다리 아저씨 프로그램 이수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채용도 진행했다.

베이커리 사업의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는 제빵사를 꿈꾸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2015년부터 구세군 서울후생원과 연계해 연간 4회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소속 제빵 기능사와 임직원들이 후생원생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제빵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랑의도시락·요리교실

급식사업의 특성을 살려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사랑의도시락'은 올해까지 전달한 수량이 10만개를 넘는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본사와 전국 100여개 급식 및 외식 사업장, 공장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월 2회 임직원들이 직접 도시락 1,000여 개를 만들어 각



신세계푸드 셰프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이 협력농가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베이커리, 외식, 식자재 유통 등 업(業) 특성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1995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철학 일회성 물품전달 아닌 業 특성 살려

연 단위 '키다리 아저씨' 지원부터 진로 상담하는 '베이킹 클래스'도 올반 간편 가정식 '명절음식' 나눔 외국인 주부엔 만드는 법 가르쳐 연 4회일손돕기로 협력농가 상생



키다리아저씨 프로그램에서 신세계푸드 셰프들이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결혼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에 전달한다.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영양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 담소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명절에는 떡국 떡, 곶탕, 불고기, 만두 등 신세계푸드의 올반 가정간편식으로 구성된 명절음식을 나눈다.

재능나눔활동인 '다문화가정 요리교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2년부터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재능기부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와 자녀들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해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협력농가 일손돕기

지난해부터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농가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활동으로 '협력농가 일손돕기'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식자재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농가 200여곳과 계약을 맺고 우수 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재배 방법 교육 등을 통해 농가와 장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협력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동시에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이 직접 협력농가 직원들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농가 일손돕기'를 연 4회 진행하고 있다.

김진규 신세계푸드 사회공헌팀장은 "식품 제조, 유통, 급식, 외식, 베이커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회사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소외이웃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세계푸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2023년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